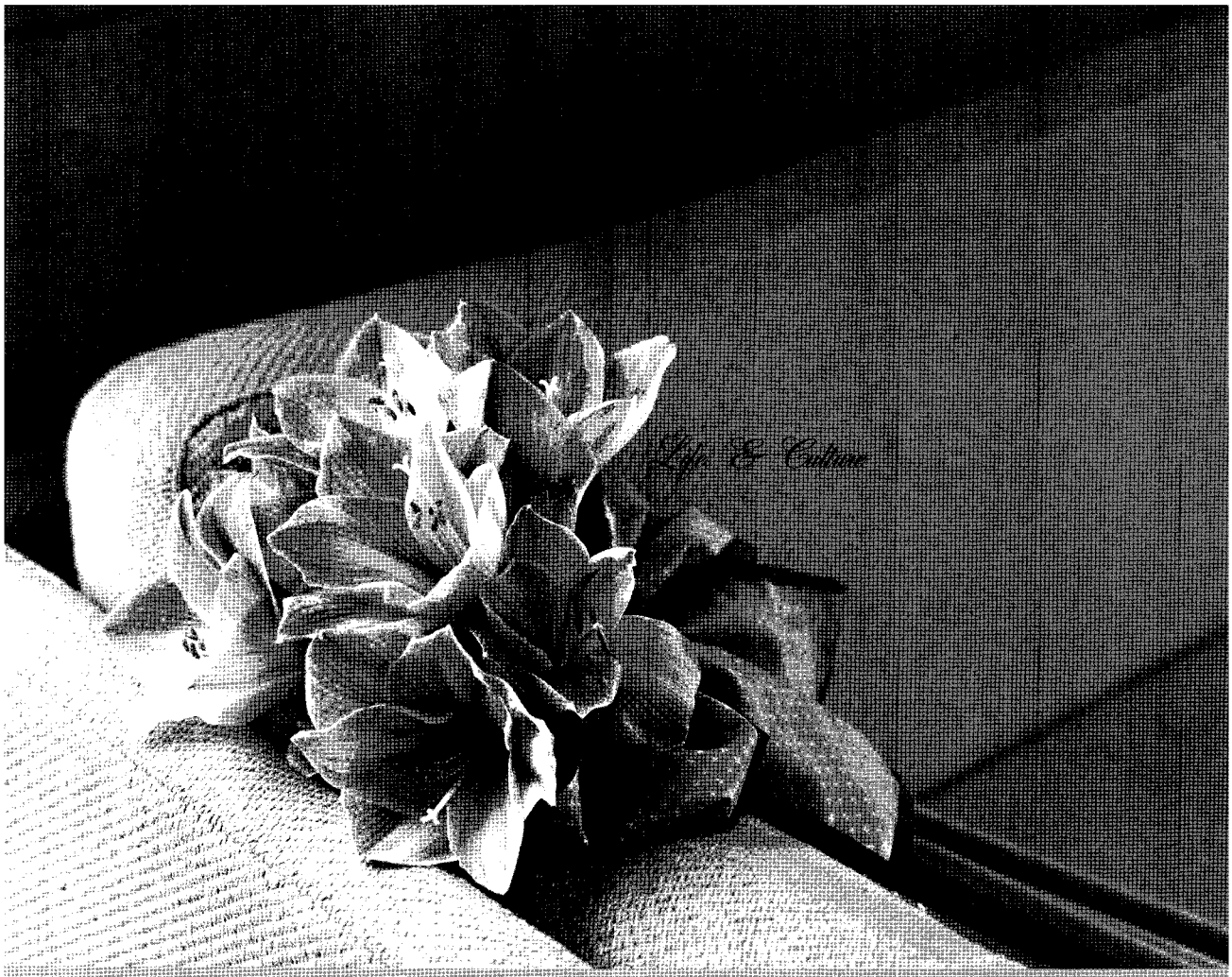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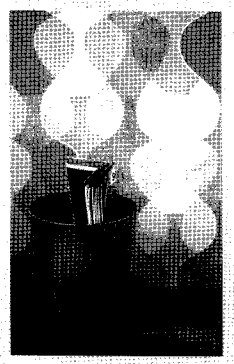


Life & Culture

생활문화



- [위대한결단—전형필] **우리 문화재 지킴이**
- [위대한결단—데이비드 사노프] **세계인의 삶을 바꾼 승부사**
- [위대한결단—르 코르뷔지에] **빛나는 도시의 연출자**
- [위대한결단—유성룡] **조선을 구한 인재들을 발탁한 재상**
- [위대한결단—도널드 트럼프] **부자가 되려면 일을 사랑하라**
- [위대한결단—앤 드뮐미스터] **옷을 해체한 흑백의 여왕**
- [위대한결단—리콴유] **싱가포르를 만든 인물**

Life & Culture 01 [위대한결단—전형필]

우리 문화재 지킴이

'간송미술관' 은 국보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다. 1938년,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 1906~1962)이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한 사립박물관으로 전형필은 10만석의 추수가 가능한 땅과 재산을 상속받은 조선 최고의 부자였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다. 당시 일제는 우리 문화재를 반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일본 와세다대 법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미술품 애호가인 오세창의 영향을 받아 서울 관훈동에 '한남서림' 을 세우고 우리 문화재 수집에 나섰다. 전형필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의 그림 등 회화작품들과 서예 및 자기류, 불상, 석불, 서적 등에 이르기까지 국보급 문화재를 거금을 들여 사들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고려청자 하나에 기와집 10채 값을 왜 지불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조선인들에게는 '금싸라기 땅을 팔아 사기그릇을 사는 바보' 로 비쳐졌고, 일본인들에게는 '나라도 없는 주제에 골동품을 모으는 놈' 으로 무시를 당했다. 사실 나라를 잃고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수만금을 주고 우리 문화재를 모았다는 사실은 우리 문화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독립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고려청자 최고의 명품으로 꼽히는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68호)' 를 사들일 때의 일화를 보자. 전형필은 그 고려청자를 거금 2만원에 사들였다. 경성에서 기와집 한 채가 1000원, 군수의 한 달 월급이 70원, 쌀 한 가마니가 16원 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 챈 일본인 도자기상이 찾아왔다. "이 물건 사신 값의 두 배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전형필이 말했다. "당신이 이 천학매병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 도자기는 원금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앗! 이보다 더 좋은 물건을...."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원형 가운데서 구름을 뚫고 날아오르는 46마리의 백학과 그 원형 사이에 무수히 흐르는 구름을 사이로 날아가는 23마리의 백학을 새겨 넣었는데 69마리가 아닌 수천마리의 학이 구름 속을 노니는 형상으로 신비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려청자였다. 그 일본인은 그보다 좋은 도자기는 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터덜터덜 돌아갔다. 국보 제1호로 지정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훈민정음(해례본)을 구입할 때 전형필은 그 가치를 인정해서 부른 값의 열 배를 주었다. 그리고 해방될 때까지 이것을 비밀로 하다가 해방 이후 공개했다. 6 · 25때는 훈민정음을 품에 넣고 피난을 떠났으며 잘 때에도 베개 삼아 베고 자면서 지켜냈다. 훈민정음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현재 간송미술관은 국보 12점과 보물 10점을 보유하고 있고 수천 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데 전형필이 한 번 구입한 문화재는 절대로 팔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돈벌이를 위한 문화재 수집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와 연구를 위한 사명감으로 그 일

을 했던 것이다. 전형필은 해방 이후에는 예전처럼 문화재를 수집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라가 독립했으니 자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재가 이 땅에 남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Life & Culture 03 [위대한결단—데이비드 사노프]

세계인의 삶을 바꾼 승부사

전파의 황제'로 불리는 데이비드 사노프(David Sarnoff :1891~1971)는 라디오와 TV를 대중매체로 만들어낸 미디어의 선구자이다. 그는 라디오나 TV를 발명한 엔지니어가 아니다. 다만 그는 전파와 방송이 지닌 상업적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그것에 '올인'한 승부사였다. 러시아 민스크에서 가난한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그는 소년 가장이 되어서 신문팔이를 하다가 마르코니 무선회사에 사환으로 들어가서 어깨너머로 무선업무를 배웠다. 1912년 4월 14일, 무선통신사로 일하고 있던 그는 이상한 신호 하나를 포착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보내는 SOS신호였다. 그는 72시간 동안 구조 전파를 수신하면서 7백여 명의 생존자 이름을 밝혀냈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렸다. 그가 수신한 생존자 명단은 '뉴욕타임스', '뉴욕헤럴드'를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마르코니 회사의 검사관으로 승진했고, 이어서 500여개의 무선전신소를 총괄하는 재정 매니저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다. 그 무렵 사노프는 세상을 뒤바꿔놓을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었다. "제 아이디어는 무선으로 각 가정에 음악을 배달하자는 것입니다. 피아노나 축음기처럼 '뮤직 박스(music box)'를 만들어 판다는 계획입니다." 즉 오늘의 '라디오'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 아이디어는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사람들은 음악이나 사람 목소리를 집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1차 세계대전은 무선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제네랄 일렉트릭(GE)은 1919년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를 세웠다. RCA에 스카웃된 사노프는 음악 송출뿐만 아니라 뉴스, 스포츠 중계라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놓았고 1922년 최초로 RCA 무선수신기(라디오)가 만들어졌다. 최초로 라디오 스포츠 중계를 실시되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 RCA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 보급된 무선수신기의 수는 5000대 가량이었으나 권투 헤비급 챔피언전 중계가 이루어지자 청취자는 30만 명으로 불어났다. 몇 달 뒤,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가 중계되자 전국 각지에 방송국들이 생겨났고, 라디오 보급 대수는 순식간에 250만을 넘어섰다.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역사적인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을 때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디오로 그 소식을 들었다. 사노프의 예지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1930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RCA 사장에 취임한 그는 TV시장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TV가 처음 선보인 것은 1939년 세계 박람회에서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미디어 시장을 내다보는 선견력은 너무도 탁월한 것이었다. 사노프는 라디오에서처럼 TV시장을 선도하는 경영을 펼쳐나갔고 1954년 컬러TV개발과 보급에 성공함으로서 RCA를 명실공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키웠다. 타이타닉호 침몰과 컬러TV의 대중화 사이에는 40여 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는 그 기간 동안 미디어 왕국을 만들었고 황제로 군림했다. 그는 현대 대중매체의 선구자로서 전 세계인의 삶을 바꾼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Life & Culture 03 [위대한결단—르 코르뷔지에]

빛나는 도시의 연출자

현대 건축을 말할 때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최고의 건축 이론가이자 화가이며 조각가였고 가구 디자이너였으며 도시 계획가였다. 그는 건축에 새로운 시대정신을 불어넣어 건축을 통한 사회 개혁을 꿈꿨던 이상가였다. 현대 건축 연구의 이론적 선구자로서 '빌라형 아파트'를 최초로 선보인 빛나는 도시의 연출자이기도 했다. 그는 청년 시절 수많은 여행을 했는데 특히 독일의 공업화된 도시와 기업을 방문하면서 산업화 된 시대에는 새로운 건축양식이 요청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또한 '동방여행'으로 불리는 그리스, 터키, 지중해 여행 중에 그곳의 아름다운 풍광과 눈부시게 희고 '정사각형, 입방체, 구형'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기하학적 건축물에 매료된다. 그에게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파르테논 신전은 감동적인 작품인 동시에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이었다. 르 코르뷔지에는 '새로운 건축의 다섯 가지 요소'를 선언하면서 현대 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과 옥상 정원, 개방된 평면, 가로로 된 긴 창문, 자유롭게 구성된 정면이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는 그리스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인체와 황금 분할에 기초한 건축의 비례 척도인 '모듈러'라는 개념을 고안해 낸 것이다. '모듈러' 개념은 현대 건축의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택문제가 그 시대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주택에도 대량생산 방식을 정립했다. 그의 위대성은 단순한 건축 이론의 주창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는 개인의 자유와 집단 활동의 특권을 정신적, 물질적인 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1922년, 그는 빌라형 아파트의 설계도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나의 의무, 나의 연구과제는 이 시대 사람들을 불행과 재난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들에게 행복과 일상생활에서의 기쁨, 조화를 가져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확립하거나 재확립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밀집 도시의 거주자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노력했다. 그는 많은 비판론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신소재'라고 불리는 시멘트와 석회, 형강, 타일, 단열재, 도관류, 철물, 방수 도료 등을 사용해서 철근 콘크리트의 탁월한 기량을 과시한 아파트를 설계한다. 또 '현대 도시'의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도시 형태를 갖춘 '3백만 도시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것은 도시의 기능을 재구성해서 용지를 절약하고, 환경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는 이 제안에서 십자형의 도로와 교통망을 짜서 도심 주거지에 60층 고층건물들을 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1929년 르 코르뷔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사부아 주택'은 그의 대표작으로 세계 각지에 비로소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상자형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 기원이 되었다. 극단적 합리성과 단순성을 추구한 그는 현대의 메마른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 낸 장본인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콘크리트의 서정성을 드높인 '롱샹 성당'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건축의 차가운 기능미 속에 따뜻한 인간미를 불어 넣은 그는 도시의 기계적 기능 보다 도시의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만든 건축물은 지금도 순례자가 북적이는 20세기 건축의 성지다.

Life & Culture 05 [위대한결단—유성룡]

조선을 구한 인재들을 발탁한 세상

만약 조선 수군의 활약이 없었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만 조선 수군이 바다에서 왜병을 차단하지 못했다면 아마 한반도는 현실의 역사보다 300년 일찍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겪었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은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하면서 이순신, 권율 등 명장을 등용했다. 특히 이순신의 발탁은 그의 정치생명을 건 도박에 가까운 것이었다. 당시 이순신은 무과에 뽑혀 북쪽 국경의 수비를 맡아 보다가 상관의 모함으로 쫓겨나서 정읍 현감으로 있었을 뿐, 조정에는 전혀 알려진 장수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어려서 이웃마을에 살던 인연이 있었다. 유성룡은 이순신보다 3살 연상으로 이순신이 지닌 장수로서의 재능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순신은 유성룡의 깊은 학문과 온화한 성품을 좋아했고 유성룡은 이순신의 무인적 기질과 경애의 마음가짐을 좋아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우정은 어른이 된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유성룡은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론'을 반대하던 온건주의자였다. 하지만 일본의 동향이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것을 감지한 그는 이순신을 적극 천거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전인 1591년 2월 13일, 이순신은 7계급이나 승진해서 전라도 좌수사가 되어 여수에 있는 좌수영으로 가게 되었다. 이순신

이 전라도 남해안 일대를 맡은 수군 사령관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순신은 일본이 침략할 것을 예견하여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었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고안해서 연전연승을 하며 왜병을 막아낸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성룡은 영의정의 신분으로 임금을 호종(扈從)하면서 의주까지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으나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어 온갖 지혜를 짜내서 반격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왜장 고니시가 보낸 조선인 간첩을 적발하는 족족 처단했다. 그래서 평양의 일본군은 명군과 조선군이 반격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동안 모르고 있었다. 유성룡은 그러는 사이에도 이순신과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선 전체의 전쟁 상황을 꿰고 있었다. 유성룡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이끌고 온 4만의 군대와 함께 평양을 수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명군은 틈만 나면 약탈과 강간을 일삼았다. 명군의 횡포는 왜군보다 정도가 더 심했다. 조선의 벼슬아치들은 이를 못 본 체할 뿐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성룡은 달랐다. 그는 직접 명군 사령부로 찾아들어가 "양국의 우의를 위해 군사들의 군기를 잡아달라"고 설득하자 이여송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빛나는 수훈과 각지에서 일어나 용감한 의병들 덕분에 조선은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변덕이 심하고 어리석은 군주였다. 그는 조선이 일본과 연합, 명나라를 치려 한다는 무고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러 명나라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같이 겪은 유성룡을 삭탈관직시켰다. 결국 유성룡은 정계에서 은퇴해 버렸고 2년 뒤 벼슬이 허용되었으나 은거의 길을 택했다. 그가 지은 '징비록(懲毖錄)'은 임진왜란의 '종군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임진왜란의 중요한 사료로서, 저자의 빼어난 문장 때문에 널리 읽히고 있다.

Life & Culture 05 [위대한결단—도널드 트럼프]

부자가 되려면 일을 사랑하라

'부동산의 제왕'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 1946~)가 2012년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 되면서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그는 자수성가한 '부동산의 제왕', '카지노 · 연예산업의 큰손'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인 겸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현재 트럼프가 차기 대선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진행하는 NBC방송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견습생, 우리나라에서는 백수탈출기라는 이름으로 케이블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됨)'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에 숨겨진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16명을 트럼프가 직접 면접하고 갖가지 시험을 치르게 한 뒤, 최종 한 명을 선발해서 트럼프 그룹에 연봉 25만 달러를 받는 CEO로 앉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매회 탈락하는 사람들에게

트럼프가 날리는 'You're fired! (넌 해고야!)' 라는 대사는 큰 히트를 쳤고 엄청나게 높은 시청율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저서에서 일주일에 28시간 자고 28시간 독서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성공 비결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이윤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열정만으로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는 와튼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동산회사에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1980년 뉴욕시 한복판의 낡은 코모도 호텔을 '하이야트 그랜드'로 개조하면서 돈방석에 앉았고, 1982년, 맨해튼에 58층의 최고급 콘도를 지어 커다란 성공을 거둠으로서 '트럼프 신화'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 후 그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빌딩이나,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땅을 사들여서 건축과 임대,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며 커다란 성공을 거둔다. 그는 "내가 손을 뻗으면 내가 생각한 가격에 내 것이 된다"고 말하면서 현대판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렸다. 하지만 트럼프도 시련을 겪었다. 1980년대 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그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빈털터리가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땅을 '순백의 도화지'로 알고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서 팔 줄 알던 트럼프는 저력을 발휘하며 부활의 기회를 잡는다. 그는 부동산, 리조트, 골프 및 호텔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하며 제2의 신화를 창조했다. 2차 시련은 2004년에도 찾아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내 사전에 지나친 것은 없다"는 자신감으로 영화와 미인대회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또 다시 부활의 신화를 창조해냈다. 2006년 트럼프는 1억 달러에 상당하는 땅(약 53만평)을 뉴욕주에 헌납했다. 이 사실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나는 항상 뉴욕시와 뉴욕주를 사랑해왔고 이번 기부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의 방식이다. 사랑하는 뉴욕과 뉴요커들에게 이 땅을 바친다"고 말해서 뉴욕 시민은 물론 미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트럼프는 초호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 호텔, 카지노, 최상의 골프장, 연예 매니지먼트, 방송제작 등 나날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최고의 사업가로서 미국적 부를 상징하는 인물, 화려한 미국적 영웅으로 변신해서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떠오른 것이다.

Life & Culture 06 [위대한결단—앤 드뮐미스터]

옷을 해체한 흑백의 여왕

벨기에는 한 여성 디자이너에 의해 또 다른 패션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앤 드뮐미스터(Ann Demeulemeester:1959~)이다. 벨기에는 서유럽 끄트머리에 위치한 면적이 경상북도만한 작은 나라다. 앤은 벨기에 왕립 예술 아카데미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이 학교가 위치한 앤트워프 시는 인구 47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다이아몬드 가공업으로 유명하고, 화가 '루벤스', 동화 '프란더스의 개'를 떠올리

는 문화적 전통이 깊은 도시다. 왕립 예술 아카데미를 졸업한 앤은 1981년 이 학교를 졸업한 6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실험 정신이 강한 디자이너의 모임인 '앤트워프 식스(Antwerp Six)'를 조직했다. 19세기까지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버금가는 패션도시였던 앤트워프의 명예를 되찾고자 한 것이다. 앤과 더불어 마틴 마르지엘라, 드리스 반 노튼, 더크 비켄버그이 속한 앤트워프 식스 그룹은 혁신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패션디자인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앤트워프는 새로운 패션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앤트워프 식스의 리더격인 앤 드뮐미스터는 자신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스타일로 세계 패션의 새로운 리더로 떠올랐다. 그녀의 패션은 한 마디로 검은색과 흰색만을 사용한 무채색 패션이다. 흔히 흑백(黑白)의 여왕으로 불리는 그녀는 무채색이 패션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자신의 트레이드 컬러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다. "옷의 본질은 구조와 실루엣에 있다. 옷의 모든 요소를 다 풀어헤친 다음, 남들이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 조립하는 걸 좋아한다. 검은색과 흰색은 그 완성품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색이다. 다른 색을 쓰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요소가 오히려 묻힌다." 하지만 블랙과 화이트의 단조로운 컬러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아방가르드하고 세련된 패션으로 변신한다. 장식적인 요소나 컬러를 배제하고 대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믹싱해서 다양한 패브릭의 조합을 통해 모순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것이 앤 드뮐미스터 패션의 특징이다. 그녀는 옷을 만들 때 장식이나 색채가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녀는 질감이 다른 소재를 섞어 쓰면서 충돌과 조화를 통해 모순에 가까운 옷을 만드는 걸 즐긴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심벌로 다양한 패브릭의 대담한 조합으로 옷을 해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앤에게는 '해체주의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는 하는데 그녀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를 옷으로 구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앤 드뮐미스터만의 패션을 새롭게 탄생시키며, 세계 패션계를 평정하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난 이미 원하는 걸 모두 이뤘다. 꿈꾸는 옷을 만들었고, 그 옷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더 높은 목표를 찾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게 패션은 사업이 아니니까. 패션은 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도구일 뿐이다. 난 삶의 본질이 노동과 사랑에 있다고 믿고, 옷 역시 삶의 본질에 가깝게 만들려고 애쓸 뿐이다." 그래서일까. 앤 드뮐미스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멋쟁이들 사이에선 강력한 마니아' 층이 형성되어 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드라마 '아이리스'의 주인공 이병헌이 입은 아이보리 컬러 리넨 셔츠와 블랙 턱시도 재킷은 그녀의 작품이다.

Life & Culture 06 [위대한결단—리콴유]

싱가포르를 만든 인물

'싱가포르의 국부(國父)'로 추앙받고 있는 리콴유(李光耀 · Lee Kuan Yew: 1923~)가 52년 만에 은퇴 결정을 내리고 정계를 떠났다. 그는 1959년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에 올라 1990년까지 31년간 총리로 재임하고, 이후에도 선임장관과 고문장관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불모의 땅 싱가포르를 부동의 '일류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에게는 '개발 독재'의 주역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지만, 그는 작고 가난한 최악의 식민지를 국민소득 세계 4위의 선진복지국가로 일궈낸 '아시아 최고의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콴유는 석유회사 직원인 아버지와 요리강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95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싱가포르로 돌아와서 노동조합 법률자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권변호사로 인식되었다. 그는 35세가 되던 해인 1959년, 영국 식민정부군으로부터 제한적인 독립을 부여받은 자치정부의 수상이 되었다. 리콴유는 그의 자서전에서 '독립 이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며칠 뒤 앓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작은 섬나라에 불과한 싱가포르로서는 천연 자원과 수자원이 부족해서 말레이시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방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생국 싱가포르의 주권 독립을 위해서 제1목표를 경제발전에 두었다. 싱가포르를 산업화해 세계 굴지의 수출국으로 변모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이 입안했다. 그는 '부패행위조사국'을 설립하고 공직자 급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고위공직자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 없이 처벌했다. 때문에 싱가포르는 해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세계 부패지수 보고서'에 '청렴도 1위'의 국가로 꼽히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가 되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이다. 서울 정도 크기에 인구 460만의 천연 자원도 없는 이 작은 나라가 1980년대에 이르러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에 이어 아시아 제2위에 올랐으며, 1990년대에는 뉴욕, 런던, 도쿄과 더불어 세계 4대 금융시장으로 성장했다. 리콴유는 권위주의적인 유교적 통치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특유의 결단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번영을 이룩해냈다. 전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리콴유에 대한 인물평에서 "시대가 인물을 만드느냐, 아니면 인물이 시대를 만드느냐 하는 오래된 논쟁에서 리콴유는 후자가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극찬하고 있다.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시대를 만든 인물'이라는 평가가 아닐까?